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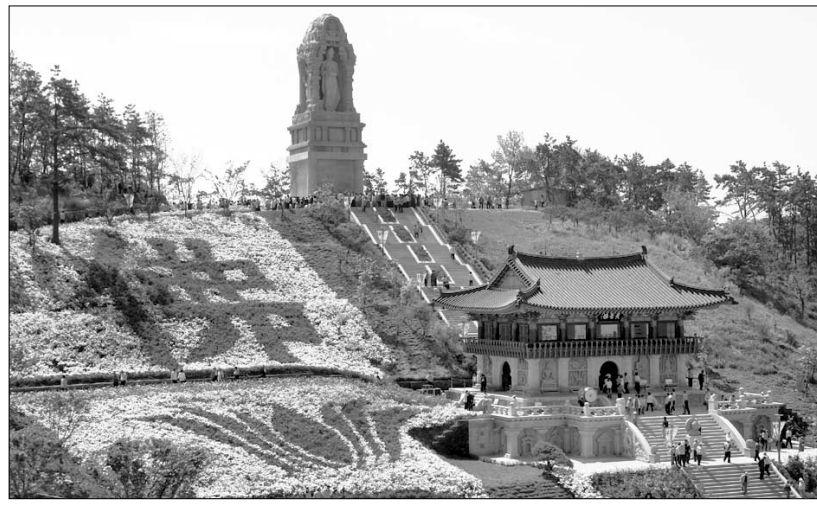
법성포 성역화 마무리

80척 높이 사면불 · 부용루 · 탑원 등 조성

1600년 전 마라난타 존자 불교전래 모습 재현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영광 법성포가 새로운 불교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불갑사와 영광군은 지난 13일 법성포 좌우도 일원에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성역화 사업을 마치고 '준공 및 불교전래 재현식'을 봉행했다.

모인 대중들이 보고있는가. 밝고 또 밝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사업회장 천은 스님은 기념사에서 "이곳은 성인이 불법을 들어온 성스러운 포구라는 뜻에서 법성포이다"며 "불연의 땅 법성포 성역화 사업으로 불법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갑사와 영광군이 7년에 걸쳐 총 19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성지'에는 사면불, 부용루, 간다라유물관 등이 조성돼 있다.

법성면 좌우도에 조성된 백제불교최초도래성지는 불갑사와 영광군이 2000년부터 총 1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면불, 부용루, 간다라유물관, 탑원,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7년만에 준공했다.

대불이다. 불갑사 주지 만담 스님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정신적, 문화적 귀의처로 불교정도를 실현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것이다"며 "만불전, 원불봉안 불사 등 성역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61)352-8097

글·사진/법성포=이준엽 기자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순례 한국전' 결산 사리신앙 참뜻 일깨워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에서 열린 '미륵불상 심장전(藏殿) 사리 세계 순례전시회'에는 1만여 명의 참배객들이 다녀갔다. 대원사의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통 불편과 홍보 부족을 감안하면 예산을 뛰어넘는 호응을 받은 셈이다.

불자 참배객들의 대부분은 사리를 진건하면서 불심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는 '사리 전시회 마니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리전시회는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1만여명 참배 · 성철 스님 법골 기증 '장엄하다' 입소문 타고 관객 늘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처님과 가섭·사리불·목련·아난다 등 부처님 10대 제자, 그리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 예세 초월 등 티베트 불교 성인들의 사리 1000여개가 전시됐다.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불교성인들의 사리가 한꺼번에 전시된 적은 없었다.

서이 부분을 지적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정좌 전시회가 세계불교의 중심지를 건립한다는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참배객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interview 전시회 책임자 게슈 세랍 스님

"'마이트레야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한국 사리전시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한국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며 이같이 밝혔다. 웨랍 스님은 또 "전시회에 기증된 성철 스님의 법골은 세계불교도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염불하며 5·18 시신 염하더니..."

前 대불련 전남 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 26주년

"부처님 따라서 했나봅니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려운 일만 도맡았나네요." 5·18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 5·18묘역을 찾은 고 김동수 열사의 부친 김영식(74)씨는 "불자들이 아들의 뜻을 잊는다면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한국대학생불교화생회 전남지부장이었던 지광 김동수 열사는 그해 5월 27일 새벽 4시30분경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했다. 평소 "보살의 삶은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할 줄 알아야한다"며 묵은일을 마다않고 앞장섰던 김 열사는 시민군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남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시신 안치, 보관 등의 일을 하면서 순수입관하고 염을 했다. 김 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은

염주, 대불련 뱃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다. 몇 년 지나자 김 열사의 뜻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집에 모셔졌던 위패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훗날 지신 스님 주선으로 김 열사의 위패는 광주 문빈정사에 모셔졌고 남은 가족들도 김 열사가 생각날때면 절을 찾곤한다.

이준엽 기자



5·18 영가 극락왕생 기원 천도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환)는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묘역에서 '5·18

민주화운동영령을 위한 천도제'를 거행했다. 5·18 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천도제에는 태고종 광주전남 중무원장 금명,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성오, 동구 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 등 지역사암 스님 50여명과 5·18희생자 가족, 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영·호남 공무원 70명 화염사 초청 템플스테이

구례 화염사(주지 종삼)는 5·31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11~12일 양일간 영호남 공무원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산사체험을 통해 지역화합과 공명선거를 다짐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 공무원 45명과 부천시 수영구 공무원 25명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운불련 도움으로 장애인 내들이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환) 스님은 5월 17일 관내 3급이상 장애인과 가족 40여명을 초청해 제11회 장애인 불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광주 운불련봉사회 소속 개인택시 20여대의 자원봉사로 진행된 이날 나들이는 보성 녹차밭-서재필 기념관 탐방으로 진행됐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2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개강안내 5월 31일 10:00~18:00 까지